

## 보리 누른잎마름병(黃枯病)발생

강수웅 · 권진혁 · 정부근

경상남도농촌진흥원

보리 재생기의 황화현상(黃化現狀)은 포장과습에 의한 습해(濕害)와 부적절한 시비에 의한 비절 현상(肥切現狀)등 생리적으로 발생되는 황화증상과 바이러스의 감염 및 *Pythium* spp.의 근부침해에 의한 황화 등 병적증상이 있다. *Pythium* spp.의 근부침해에 의한 지상부의 황화현상은 누른잎마름병(黃枯病)으로 일본에서는 Kusunoki(1994, 1995)에 의해 발병생태와 방제방법에 대해 상세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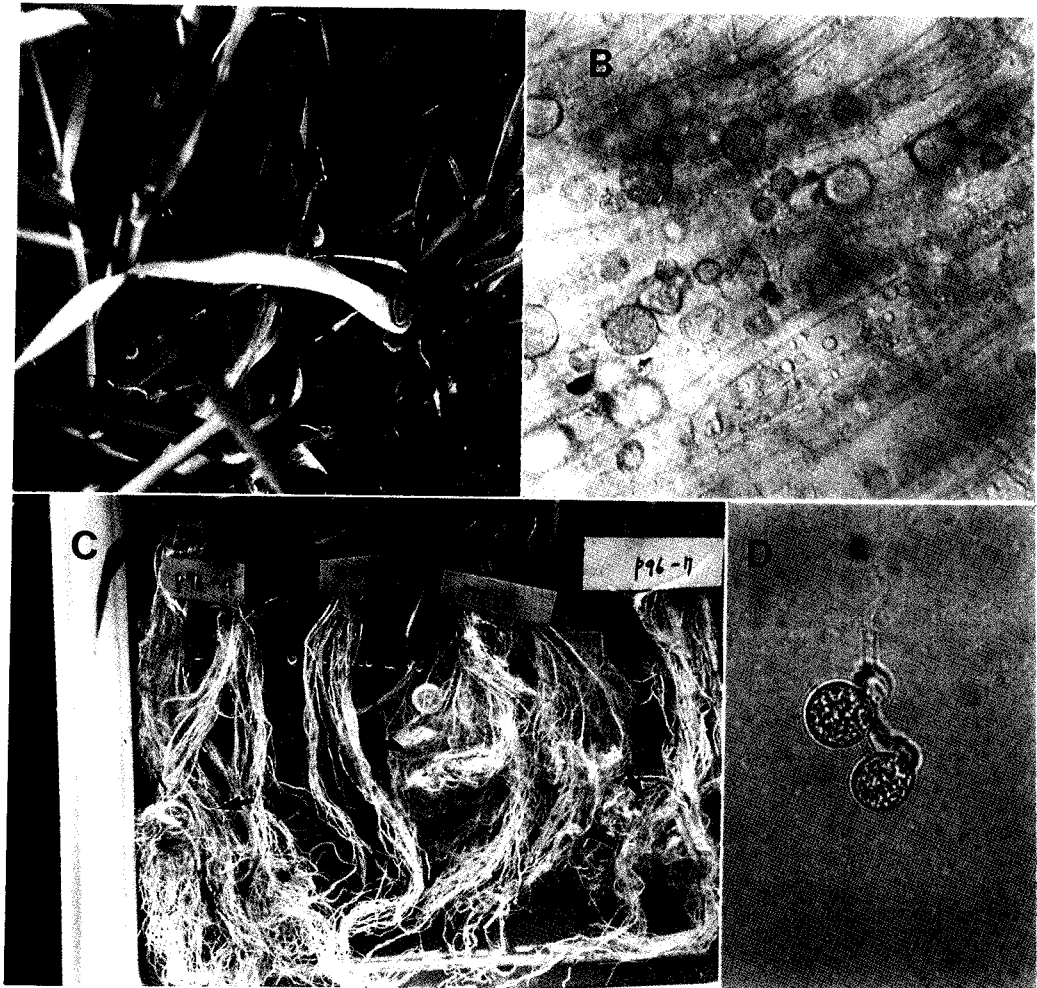


그림 1. 누른잎마름병(黃枯病)의 병징

A. 하위엽의 황화현상, B. 뿌리 조직속의 *Pythium ultimum*의 난포자, C. *P. ultimum* 침해에 의한 근부 갈변증상 D. 배지상에 형성된 *P. ultimum*의 난포자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경상남도지방에서의 발병은 수년전부터 발병되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발병을 확인한 것은 1996년 4월 진주시 초전동 소재 경남도원 시험포장에서 재배중인 맥주맥 사천 6호에서 처음 확인하였다.

병징은 그림에서와 같이 하엽이 황화 되면서(그림 A) 건전주에 비해 초장이 짧았고, 분얼수도 적었으며 먼 거리에서도 황화현상을 뚜렷이 구별할 수 있었는데 발병정도는 경미하였다. 감염된 개체의 뿌리 조직속에서는 *Pythium* sp.의 난포자(그림 B)가 다수 형성되어 있었고 감염부위는 갈변되어 있었다(그림 C). 분리한 균은 균의 형태적 특성으로 보아 *Pythium ultimum*으로 동정되었고, 군사생육적온은 25-30°C로 균사의 자람속도가 매우 빨랐으며, 소한천배지상에서 난포자의 형성이 잘되었다(그림 D)